

계(界 · 系 · 係 · 契) / in process

김하린 HA RHIN KIM

작가노트

나는 오랫동안 어떤 '관계의 상태'에 대해 작업해왔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고, 몸과 감각, 생성과 소멸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 초기 작업에서 모성과 몸의 감각에 집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산과 돌봄의 경험 속에서 나는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경계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를 경험했다. 그 감각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라기보다,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구조처럼 느껴졌다.

최근 작업에서 나는 그 관심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작업의 중심에는 '금(金)'이라는 물질이 있다. 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욕망과 숭배, 신성과 권력, 보호와 영원을 상징해온 물질이다. 동시에 빛을 반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물질이기도 하다. 나는 금을 단순히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감각과 믿음의 흔적으로 바라본다.

화면 위에는 반복되는 원형과 궤도, 균열과 중첩, 스며듦과 흐름의 구조들이 나타난다. 그것들은 특정한 상징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라기보다, 어떤 생성 과정의 흔적들에 가깝다. 나는 작업을 하면서 인간이 왜 오래전부터 원을 그리고, 빛나는 물질에 매혹되고, 반복적으로 어떤 형식을 만들어왔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그것은 종교 이전의 감각일 수도 있고, 언어 이전의 기억일 수도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관계의 구조일 수도 있다.

이번 전시는 설치가 아닌 회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회화들은 하나의 평면이라기보다, 감각과 시간이 축적되는 장에 가깝다. 나는 화면 위에 안료와 금박, 젤 미디엄과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며, 어떤 완결된 이미지를 만들기보다 감각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상태 자체를 남기고자 했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나 역시 그 과정 안에 함께 머물러 있다. 「계(界 · 系 · 係 · 契) / in process」에서 '계'는 하나의 뜻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세계와 경계, 관계와 연결, 흐름과 계통, 맺음과 교감의 의미가 서로 겹쳐지며 끊임없이 이동한다. 나는 이번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존재와 감각들이 충돌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되고 스며들며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상상하고자 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 안에 오래전부터 남아 있는 포용과 생성의 감각, 그리고 서로를 향해 열려 있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Gye (界 · 系 · 係 · 契) / in process

HA RHIN KIM

Artist Statement

For a long time, I have been working on a certain “state of relationship.” This refers to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s well as those between the body and the senses, and between creation and destruction. This is why my early work focused on motherhood and bodily sensati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childbirth and caregiving, I experienced the process by which one being accepts and transforms another, as well as the state in which those boundaries are constantly shifting. That sensation felt less like a mere personal experience and more like the most primordial structure of human existence.

In my recent work, I am expanding that focus to a more fundamental level. At the center of this body of work is the material “gold.” Since ancient times, gold has symbolized human desire and worship, divinity and power, protection and eternity. At the same time, it is a material that reflects light and does not easily fade away. I do not use gold merely as a beautiful material, but view it as a trace of the sensations and beliefs that have long accumulated within humanity.

On the canvas, structures of repeating circles and orbits, cracks and overlaps, seepage and flow appear. Rather than images intended to illustrate specific symbols, they are closer to traces of a generative process. As I work, I reflect on why humans have drawn circles since ancient times, why we are captivated by luminous materials, and why we have repeatedly created certain forms. This may be a sensibility predating religion, a memory predating language, or the structure of a relationship that existed even before we understood one another.

This exhibition consists of paintings rather than installations. However, these paintings are less like a single plane and more like a space where sensations and time accumulate. By repeatedly layering pigments, gold leaf, gel medium, and other materials on the canvas, I sought to capture the very state in which sensations are generated and transformed, rather than creating a finished image. The work is an ongoing process, and I, too, remain within that process.

In “Gye (界 · 系 · 係 · 契) / in process,” the term “Gye” is not fixed to a single meaning. The meanings of “world” and “boundary,” “relationship” and “connection,” “flow” and “lineage,” and “bond” and “communion” overlap and are in constant flux. Through this work, I sought to imagine a state in which different beings and sensations do not collide or separate, but rather are loosely connected, intermingle, and coexist. Perhaps this is a story about the sense of inclusiveness and creation that has long resided within humanity, and the movement toward openness toward one another.